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대정성지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김진철

2011년 8월

제주도 대정성지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

지도교수 양진건

김진철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김진철의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1년 8월

【국문초록】

제주도 대정성지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

김진철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지도교수 양진건

최근 지역의 공간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공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흥미롭고 새로운 경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은 기본적으로 공시적 또는 통시적으로 축적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공간의 이야기를 매개로한 소통을 통해 공간의 의미를 이해한다. 따라서 공간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제시할 경우 공간의 차별화를 모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 공간의 자원을 활용한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해 공간의 장소성을 도출하였다. 우선 공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소자산을 기반으로 장소자산 분석, 스토리 발굴, 공간 기획으로 이어지는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을 수립하고 각 단계에서 표층적 장소성, 서사적 장소성, 심층적 장소성을 연계시키는 공간의 의미 확장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연구 대상지인 제주도 대정성지에 적용하여 공간 스토리텔링 기획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로 대정성지의 장소자산을 분석하여 중심 요소인 역사성을 도출했으며, 두 번째로 역사성을 기반으로 공간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추사 김정희의 유배 스토리를 스토리 테마로 선정하였다. 세 번째로 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의 의미

분석을 통해 공간을 기획하여 자기완성의 공간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해 대정성지의 장소성은 표층적 장소성인 역사성, 서사적 장소성인 추사 김정희의 유배지, 심층적 장소성인 자기완성의 공간으로 차별화된 공간의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획일화된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 자원을 활용한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해 차별화된 장소의 정체성 도출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차후 다양한 공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지닌 공간의 유의미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II. 장소성과 공간 스토리텔링	5
1. 장소성의 개념과 형성요인	5
1) 장소성의 개념	5
2) 장소성의 형성요인	8
2. 공간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전략	13
1) 공간 스토리텔링의 개념	13
2) 공간 스토리텔링의 전략	16
III. 대정성지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한 장소성 형성	20
1. 대정성지의 장소자산 분석과 표층적 장소성	20
1) 대정성지 일대 개관	20
2) 대정성지의 장소자산 분석	21

2. 대정성지의 스토리 발굴과 서사적 장소성	30
1) 스토리 목록 작성	30
2) 대표 스토리 발굴	41
3) 스토리 테마 추출	46
3. 대정성지 공간 기획과 심층적 장소성	48
1) 대정성지 공간의 의미화	48
2) 대정성지의 공간 구성	58
IV. 결론	64
참고문헌	66
Abstract	69

표 목차

<표 1> 장소성 형성요인	10
<표 2> 장소의 요소에 따른 장소자산의 분류	12
<표 3> 스토리텔링 개념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15
<표 4> 공간 스토리텔링의 단계	17
<표 5> 문화콘텐츠의 의미생성 모델	18
<표 6> 공간 스토리텔링 프로세스	19
<표 7> 대정성지 일대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22
<표 8> 대정성지 일대 도지정문화재 현황	23
<표 9> 대정성지 일대 유적 및 관청터 현황	24
<표 10> 대정성지 관련 역사 자료 현황	26
<표 11> 대정성지 일대의 장소자산 분석	29
<표 12> 대정지역 대표 유배인	31
<표 13> 동계 정은 관련 스토리	32
<표 14> 정난주 마리아 관련 스토리	34
<표 15> 추사 김정희 관련 스토리	35
<표 16> 제주옹기 관련 스토리	37
<표 17> 돌하르방 관련 스토리	39
<표 18> 방사탑 관련 스토리	40
<표 19> 대정현 성벽 관련 스토리	41
<표 20> 유배문화 스토리 분석	43
<표 21> 제주옹기문화 스토리 분석	43
<표 22> 돌문화 스토리 분석	44
<표 23> 대정성지 스토리의 상품성 분석	45
<표 24> 대정지역 유배인 관련 분석	46
<표 25> 추사의 첫 번째 유배지와 관련된 스토리	49

<표 26> 추사의 첫 번째 유배지 공간의 의미	49
<표 27> 추사의 두 번째 유배지와 관련된 스토리	50
<표 28> 추사의 두 번째 유배지 공간의 의미	52
<표 29> 동계 정은 유배지와 관련된 스토리	53
<표 30> 동계 정은 유배지 공간의 의미	53
<표 31> 대정향교 공간과 관련된 스토리	54
<표 32> 대정향교 공간의 의미	54
<표 33> 정난주 마리아 묘와 관련된 스토리	56
<표 34> 정난주 마리아 묘의 공간의 의미	56
<표 35> 추사 김정희의 유배기간 동안 공간 의미 변화	59
<표 36> 대정성지 일대 스토리텔링 구성도	61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대상 범위	3
<그림 2> 장소성 형성 모식도	9
<그림 3> 장소성 형성요인의 잠재변수	11
<그림 4> 대정성지 위치	21
<그림 5> 대정성지 주요 유적지 현황	21
<그림 6> 예산추사김정희종가유물 중 『신해년책력』의 추사 김정희 필적 ..	22
<그림 7> 대정향교	24
<그림 8> 『탐라순력도』 대정관련 자료	27
<그림 9> 제주대정 삼의사비	28
<그림 10> 동계 정은 유배지	33
<그림 11> 동계 정은 유허비	33
<그림 12> 정난주 마리아 묘	34
<그림 13> 제주추사관	36
<그림 14> 추사유배지	36
<그림 15> 구억리 노랑굴	37
<그림 16> 구억리 검은굴	37
<그림 17> 제주옹기박물관	38
<그림 18> 대정현 돌하르방	39
<그림 19> 인성리 방사탑 2호	40
<그림 20> 대정현 성벽	41
<그림 21> 제주도 유배 관련 유적지 현황	42
<그림 22> 추사의 첫 번째 유배지(송계순의 집터) 위치	48
<그림 23> 추사의 두 번째 유배지(강도순의 집) 위치	50

<그림 24> 동계 정온 유배지, 동계 정온 유허비 위치	52
<그림 25> 대정향교 위치	54
<그림 26> 정난주 마리아 묘 위치	55
<그림 27> 대정성지 일대 추사 김정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간	57
<그림 28> 대정성지 일대 추사 김정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간	58



I. 서론

1. 연구 목적

이야기 또는 서사(敍事)를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은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게임과 같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다. 최근 들어 흥미로운 스토리를 활용한 수요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관광 분야에서도 스토리텔링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주5일제 근무로 인해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단체여행보다 개인 또는 가족단위 여행이 늘어나면서 단순한 둘러보기 여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변화하는 여행 수요에 맞춰 각 지자체는 둘러보기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과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스토리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이미지를 전달하려 하고 있다. 과거에는 테마파크, 박물관, 기념관 등의 하드웨어 조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최근의 추세는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 등의 자원을 연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의 이야기 발굴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유네스코에서 관여하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은 물론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되면서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하였다.

제주도는 이러한 세계적인 청정자원을 활용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도전하고 있는 “세계 7대 자연경관” 또한 자연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의 경관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만 머물고 있고, 경관과 연계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내 도보체험 관광의 붐을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제주올레의 경우도 제주도 해안을 따라 조성된 올레길 주변 절경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을 뿐 올레와 연결된 지역의 여러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시도는 아직 미약한 편이다. 또한 100개가 넘는 제주도의 박물관과 테마파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변 공간과 아무런 연관성 없이 개발되어 있어, 제주도 관광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제주도의 공간에 제주도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제주도만의 이미지를 알리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탐라국 건국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으며, 고려 시대에는 원나라의 직접 지배를 받기도 하였고, 조선시대에는 극악의 유배지로 유명하였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마지막 저항지였으며, 4·3사건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현장이 남아있는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의 흔적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또한 제주도는 섬이라는 한계성으로 독특한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많은 신화들이 구비전승 되고 있고, 독특한 언어가 보존되어 있으며, 해녀와 돌담 등 제주도만의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주도의 역사, 문화에는 필연적으로 이야기가 남아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공간과 연계한 이야기들은 제주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제주도만의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 테마파크 조성 등의 획일화된 공간 제시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 자원을 활용한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해 차별화된 장소의 정체성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발전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공간은 기본적으로 공시적, 통시적으로 축적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형성되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 공간의 이야기는 지역의 물리적 공간과 연계하여 존재하기도 하고, 기록물을 통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며, 구전을 통해 전해지기도 한다. 시간을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축적된 이야기는 그 공간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로 남아 공간의 의미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공간의 의미를 경험하기 위해 공간을 방문하고, 끊임없이 의미를 찾는 시도를 한다. 이야기를 매개로 한 공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간의 정체성과 마주하는 것이다. 결국 공간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과의 소통 방법이며, 의미를 찾게 하는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공간의 이야기에 대한 접근을 통해 다른 곳과의 차별화를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공간 스토리텔링을 실시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 연구를 통해 장소성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장소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에 대한 분석을 거쳐 공간 스토리텔링에 적용 가능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도출한다. 그 후 연구 대상지의 장소자산을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지역 공간의 스토리를 활용한 공간 기획을 통해 대상 공간의 차별화된 장소성을 찾아내는 공간 스토리텔링을 시도하고자 한다.

Ⅱ. 장소성과 공간 스토리텔링

1. 장소성의 개념과 형성요인

1) 장소성의 개념

공간(空間)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곳” 또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뜻한다. 따라서 공간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은, 아직 정체성이 갖춰지지 않은 일정한 물리적 구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장소(場所)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²⁾”을 말한다. 공간과 장소와의 관계에 대해 양준영과 김억은 “공간을 이용하는 인간이 그들의 경험을 얻고 그것에서 만들어지는 느낌, 기억, 기대 등을 바탕으로 공간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곳은 무의미했던 물리적인 공간에서 의미가 부여된 장소가 된다.(양준영·김억, 2009: 26)”고 하였으며, 백선희는 “특정한 공간적 규모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와 인간행위의 결과물이 인지되어 의미를 가지는 공간적 실체이며, 또한 인간의 활동이 일어나는 맥락인 동시에, 인간이 경험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적 대상(백선희, 2005: 40)”이 장소라고 하였다. 최인호와 임은미는 “장소란 의미가 부여된 공간으로서 인간이 체험을 통해 공간을 이해하고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장소의 생성이 이루어지게 된다(최인호·임은미, 2008: 413)”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장소는 일정한 물리적 공간에 의미가 부여된 공간, 즉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어 고유의 정체성을 갖는 유의미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공간의 장소화에서 중요한 요소는 인간의 경험이다.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장소와 관련된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은 경험을

2) 공간과 장소의 사전적 의미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의 검색 결과를 활용하였다.

통해 의미가 생성된 공간을 특별한 장소로 기억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경험의 종류에 따라 긍정적인 장소로 기억될 수 있고, 부정적인 장소로 기억될 수도 있다. 가령, 길거리를 걷다가 땅에 떨어진 돈을 주웠을 때 그 길거리는 행운의 장소로 기억되겠지만, 강도를 만났다면 다시는 지나가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거리로 인식될 것이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거리는 다른 곳과 구분되지 않는 무의미한 공간으로 남게 된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도 공간과 장소, 인간 경험의 상관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시에서는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꽃’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 ‘의미 있는 꽃’이 된다. 여기서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공간이라 볼 수 있으며,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특별한 경험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인 꽃’은 유의미한 장소와 연결된다. 따라서 무의미한 공간은 장소와 연결된 고유한 경험이 더해지면서 정체성을 갖게 되고 의미 있는 장소로 남게 된다.

의미를 가진 경험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경험이 아니라 공간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일수록 기억의 효과가 높다.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서 일어난 일보다 여행지에서의 경험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과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소에 대한 기억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새로운 경험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인해 공간의 장소화는 현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보 획득이 주 목적이던 사이버 공간이 블로그, 카페,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등장으로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인 또는 특정 그룹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소통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의미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특징은 사람의 직접적인 체험이 아닌 간접 체험으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MMORPG로 대표되는 온라인게임 내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통한 체험은 게임 내의 특정 공간을 유의미한 장소로 기억하게 한다. 이러한 장소의 확대는 새로운 기술과 맞물려 가상현실 공간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증강현실 또한 특정 공간의 스토리를 흥미롭

게 전달하여 장소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의 다양한 체험과 연계한 공간의 의미화 과정은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공간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는 행위는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 남과 다른 차별화된 개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최근의 경향은 여러 분야로 확장되어 특별한 상품, 특별한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단순한 공간이나 다른 곳과 동일한 의미의 장소가 아닌 특별한 장소의 의미가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간의 장소화를 통해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개인마다 양상이 다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유사한 의미를 체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각 장소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의 장소에는 공시적, 통시적으로 인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축적된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을 장소성이라고 한다.

홍경구는 “장소성이란 인간에 의해 일정기간 체험됨으로서 가치와 의미가 붙여진 특정 공간”이라 하면서, “장소의 차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홍경구, 2009: 257)”라 하였다. 백선희는 “장소성이란 장소의 인지된 특성으로, 이는 인간이 체험을 통해 애착을 느끼게 되고, 한 장소에 고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장소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일컫는 것(백선희, 2005: 61)”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장소성은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체험을 통해 생성된 고유한 특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Hollywood하면 영화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고, Las Vegas하면 도박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경험의 축적을 통해 나타나는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정체성이 장소성인 것이다.

장소가 단기간에 형성되는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추구한다면, 장소성은 오랜기간에 걸친 집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소의 의미는 개인에 따라 새로운 경험에 의해 급속히 변화될 수 있지만, 장소성은 지속적으로 축적된 집단의 경험을 통해 제시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며 변화가 느리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장소에서 느끼는 의미와 집단의 장소성은 유사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장소성은 개인이 장소에서 느끼는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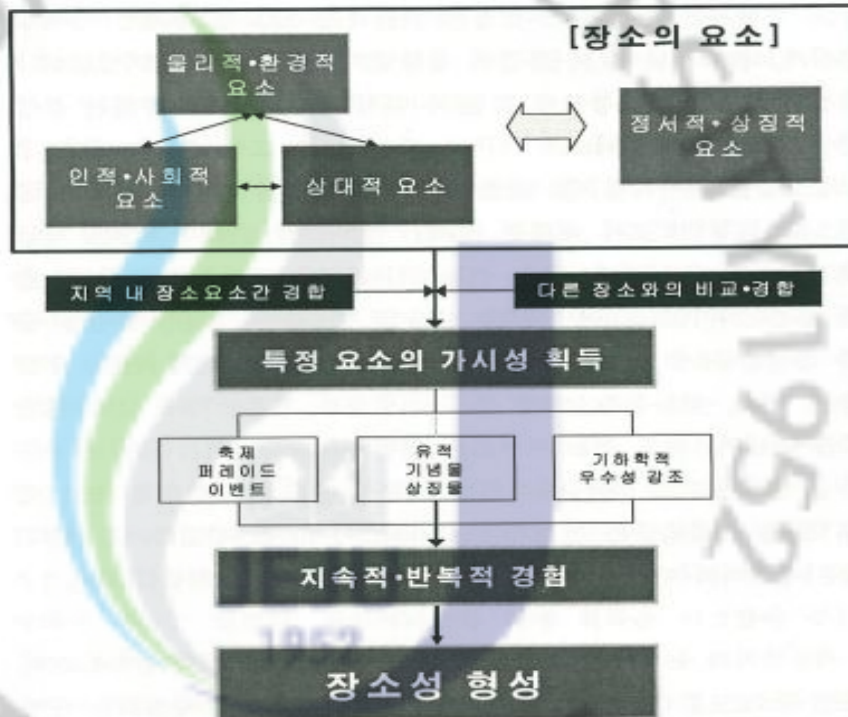
미가 오랜시간 동안 축적이 되어 집단이 공감할 수 있는 의미로 굳어진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공간에 대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성을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형성된 장소성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장소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 장소성의 형성요인

일정한 공간은 오랜 시간동안 축적된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장소성은 파리의 에펠탑이나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처럼 현대적 건축물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고,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며, 아마존과 같이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특별한 장소성의 형성은 다른 곳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게 해주며, 방문객을 유도하는 기폭제로 작용한다.

장소성 형성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장소가 가진 여러 요소들을 분석하여 장소성의 형성요인을 찾아내고 있다.

백선희는 장소자산의 분류를 통해 “물리적·환경적 요소, 인적·사회적 요소, 상대적 요소와 정서적·상징적 요소들로 분류하고, 장소의 여러 요소들이 장소요소간의 경합과 다른 장소와의 비교·경합을 거쳐 특정 요소가 가시성을 획득하고 이러한 요소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장소성이 형성된다(백선희, 2005: 60)”고 보았다.



*출처 : 백선희(2005: 66)

<그림 2> 장소성 형성 모식도

양준영과 김억은 장소성 형성요인을 ‘물리적 실체, 물리·환경적 요소, 장소의 경관,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 물리·환경적 요소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 생활양식, 사회적 인식, 인적·사회적 요인, 애착, 이미지, 정체성, 발생하는 사건들, 사람들의 활동’ 등으로 정리하였으며, 물리적, 문화적, 경험·활동적 기준을 통해 ‘Mapping, Story, Image’의 세 가지 요인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들은 이 세 가지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장소성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양준영·김억, 2009: 26).

<표 1> 장소성 형성요인

형성요인	내용
Mapping	장소에 자리 잡고 있는 물리적 요소 중 장소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는 요소들
Story	장소 고유의 행사, 역사, 생활양식 등 장소의 문화적 특성을 가진 요소들
Image	Mapping적 요소와 Story적 요소들이 조합되어 방문자들에게 인식되는 장소 고유의 인상

*출처 : 양준영·김역(2009: 26)

이남휘는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소성 형성요소³⁾를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적 요소’, 그 활동들의 기반이 되는 ‘인적 요소’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상징적·의미적 요소’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첫째,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그 곳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활동 그리고 인적 자원으로 구성되는 장소성 형성요소와 둘째, 물리적 환경, 인간, 인간 활동의 상호관계에 의해 장소에 형성된 복합적 현상인 장소 정체성, 셋째, 장소성 형성과정 속에서 형성요소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획득되는 상징적·의미적 요소인 장소성의 결과적 요소로 나누고, 장소성 형성요인이 각각 장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장소성 형성요소의 잠재 변수가 된다고 하였다(이남휘, 2011: 14-15).

3) 이남휘는 장소성 형성요소과 형성요인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장소성 형성요소를 형성요인의 하위개념으로 보았다.



*출처 : 이남휘(2011: 15)

<그림 3> 장소성 형성요인의 잠재변수

장소성 형성과 관련한 위 논의들은 장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장소성 형성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소의 의미는 물리적·환경적 요소와 연계하여 존재하기도 하고, 인적·문화적 요소를 통해 전해지기도 하는 등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장소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요소들은 장소에 존재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인 장소자산⁴⁾을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특정 공간의 장소성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장소에 존재하고 있는 장소자산을 분류하여 유목화하고, 각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장소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백선혜는 장소자산을 “한 장소가 가지고 있는 장소의 요소 중 긍정적 요소, 즉 장소의 매력으로 기능을 하고 있거나, 혹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 개발하였을 때 매력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백선혜, 2005: 73)”이라고 하면서 장소자산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4) 공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은 ‘장소자산, 의미자질, 문화자원, 문화원형’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라는 의미로 ‘장소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표 2> 장소의 요소에 따른 장소자산의 분류

장소의 요소	장소 자산 분류	구체적 예
물리적· 환경적 요소	물리적 자산	도로망, 항구, 건물, 인프라
	환경적 자산	지형, 기후, 청정 환경
인적· 문화적 요소	사회·문화적 자산	문화, 레크리에이션, 역사, 이벤트, 축제, 예술작품
	정치·제도적 자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주민의 협조적 분위기, 도시공공서비스
정서적· 상징적 요소	상징적 자산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정, 정체성
상대적 요소	위치적 자산	시장, 상권, 결절지
	잠재적 자산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 않거나 심지어 부정적 요소로 인식이 되고 있는 장소요소 가운데 시대 변화에 따라 긍정적 자원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자산
	상대적 가능성 자산	장소자산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경쟁 장소에 존재하지 않거나 약하여, 해당 장소에 도입하면 상대적으로 선발이익이나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장소자산

*출처 : 백선혜(2005: 76)

각각의 장소자산을 요소별로 분류할 경우 그 장소에서 두드러지는 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장소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산, 바다 등의 자연적인 요소가 강한 곳은 생태, 자연성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며, 디즈니랜드 등 놀이공원, 레저 활동 등의 오락적인 요소가 강한 경우에는 오락성을 내세울 수 있다. 또한 경주처럼 유물, 유적지 등의 역사적인 요소가 강할 경우 역사성을, 월스트리트와 같이 금융 등의 경제적인 면이 강한 경우 경제성을, 브로드웨이나 대학로처럼 공연, 예술 등의 요소가 강한 경우 예술, 문화성으로 장소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요소들에 비해 부각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장소성을 도출할 수 있다.

2. 공간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전략

1) 공간 스토리텔링의 개념

공간을 장소화하고 장소성을 형성하는데 매개체가 되는 것은 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공간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축적된 다양한 이야기를 체험한다.

현대 사회는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몰리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공간에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토리도 점점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승규는 “공간의 모습이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이 비슷해지거나 삶의 패턴이 닮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모두가 개성을 추구하면서도 오히려 같음의 공간에 익숙해져간다는 것이 오늘의 역설(박승규, 2009: 81)”이라고 말한다.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사람들은 일상과 다른 스토리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여행 트렌드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공간의 스토리는 각 장소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스토리를 받아들이기 어렵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간의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며, 이런 점에서 스토리와 수요자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공간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것이다.

공간 스토리텔링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연구 대상에 따라 실내 공간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야외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실내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주로 박물관, 테마파크 등의 실내 전시 공간을 중심으로 관람 동선에 따른 전시방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야외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하나의 지역 또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테마를 가진 마을을 조성하거나,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또는 일정 구간의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주를 이룬다. 본 연구의 대상지가 야외 공간인 점을 고려하여 야외 공간에 대한 스토리텔링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최혜실은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문화 공간 전체로 확산된다고 하면서 삶의 공간이 놀이의 공간 및 생산 공간과 일치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21세기의 공간의 중요 특성 중 하나가 공간의 테마파크화임에 주목하여 테마파크의 스토리텔링을 “과거의 경험으로서의 스토리텔링과 현재 공간에서 수용자가 그 스토리텔링을 상기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신의 과거 기억을 통하여 이야기를 환기시키며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구축(최혜실, 2008: 30)”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특정 공간의 서사적 요소를 분석하여 공간의 스토리텔링을 시도하였다.

김영순은 공간의 개념을 “인간들의 다중적인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재구성되고 확장되는 공간 텍스트(김영순, 2010: 38)”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공간 스토리텔링의 구체적인 대상은 ‘지역’을 단위로 하여 각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지역의 장소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공간 스토리텔링 과정을 공간의 장소성 도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간에 이야기를 부여하여 최종적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단계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공간 텍스트의 청자의 관점에서 공간의 의미적 맥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그것의 장소성을 도출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 단계는 도출된 장소성을 토대로 공간에 테마와 이야기를 부여하는 과정이며, 세 번째 단계는 공간 텍스트의 화자적 관점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이다(김영순, 2010: 44-46).

최인호와 임은미는 장소마케팅의 관점에서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들은 장소 스토리텔링을 “장소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이를 체험하고 그러한

체험들이 공유되면서 하나의 장소성을 형성해나가는 공유가치(새로운 스토리) 추구의 과정인 관념적 스토리텔링과 스토리 체험의 과정 중에 스토리 테마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관광객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스토리텔러적인 관점에 방점을 둔 기능적 스토리텔링으로 양분할 수 있다(최인호·임은미, 2008: 419)”고 하였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개념을 활용한 장소마케팅의 체계를 개념화하여 스토리 발굴, 스토리 체험, 스토리 공유의 세 단계로 나눠 설명하였다.

<표 3> 스토리텔링 개념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구분	단계		
	장소마케팅	장소자산 발굴	장소성 형성
장소매력		체험	관계자산
스토리텔링	Story	tell	ing
	이야기성	현장성	상호작용성
스토리텔링 개념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스토리 발굴	스토리 체험	스토리 공유
	스토리 목록 작성 대표 스토리 발굴 스토리 테마 추출	체험환경 정보환경	커뮤니티
	공동스토리(공동가치) 창출		

*출처 : 최인호·임은미(2008: 420)

스토리 발굴 단계는 장소자산을 발굴하여 스토리 목록을 작성하고, 장소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대표 스토리를 발굴한 후 장소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스토리 테마를 추출해내는 단계이다.

스토리 체험 단계는 스토리 발골을 통해 정해진 테마를 전달하기 위해 관광객들의 직접체험을 위한 체험환경과 스토리의 간접체험을 위한 정보환경을 조성하여 장소에 대한 일관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단계이다.

스토리 공유 단계는 사회의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체험이 공유되면서 장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단계이다(최인호·임은미, 2008: 420-423).

이러한 논의들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다. 공간 속에 축적되어 있는 인간의 경험은 공간마다 다르다(박승규, 2009: 80-81). 하지만 그 동안의 스토리텔링 시도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스토리텔링 하거나, 지역의 문화와 상관없는 스토리텔링이 공간에 적용되어 왔다. 공간의 장소성과 이질적인 스토리텔링은 경험의 피리를 가져와 장소성이 약화되고, 스토리텔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지역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 스토리텔링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또한 위의 논의들은 지역의 서사, 곧 스토리에 주목한다. 공간을 장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있는 경험이 중요하며, 스토리가 바로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과 스토리의 결합을 통해 유의미한 장소로써의 역할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장소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유의미한 공간의 장소성은 공간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공간의 스토리텔링이 다시 장소성을 강화한다. 곧, 장소성과 공간 스토리텔링은 상호작용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확대되는 것이다.

2) 공간 스토리텔링의 전략

공간 스토리텔링은 지역의 장소자산을 기반으로 한 장소성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공간 스토리텔링이 다시 장소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공간 스토리텔링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1단계는 장소자산의 분석이다. 장소가 보유한 자산들을 물리적·환경적 요소, 인적·문화적 요소, 정서적·상징적 요소, 상대

적 요소들로 분석하고, 이러한 각 요소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을 찾는 단계이다. 2 단계는 스토리의 발굴이다. 공간에 산재되어 있는 스토리를 목록화하여 테마 스토리를 발굴하고, 스토리 테마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공간 기획이다. 공간 분석을 통한 장소자산의 요소와 발굴해낸 스토리를 기반으로 공간과 스토리를 연계하고 공간을 의미화 하는 단계이다.

<표 4> 공간 스토리텔링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장소자산 분석	스토리 발굴	공간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환경적 요소 - 인적·문화적 요소 - 정서적·상징적 요소 - 상대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 목록 작성 - 테마 스토리 발굴 - 스토리 테마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의미화 - 공간 구성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장소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서사 구조를 공간에 적용하거나, 장소성을 도출한 후에 스토리를 구성하거나, 장소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장소성을 형성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자산의 분석, 스토리 발굴, 공간 기획의 각 단계별 장소성에 주목하였다. 공간 스토리텔링 부각되는 장소성과 공간 스토리텔링 시도 후의 장소성이 동일한 층위에서 이루어진다면 자칫 스토리텔링을 시도한다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장소자산의 대표적인 요소에 의해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장소성이 있을 수 있고, 발굴한 스토리를 통해 드러나는 장소성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공간과 스토리를 연계하여 의미화하는 시도에 따른 장소성도 나타날 수 있다.

각 장소성은 전혀 다른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자산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장소성을 강화하고 심화하면서 연계된다. 따라서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해 장소성을 도출해 내는 과정은 동일한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각 단계별로 다른 층위의 장소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곧, 단계를 거칠수록 장소성이 강화되

거나 심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레마스의 의미생성 모델을 응용한 “문화콘텐츠의 의미생성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백승국에 따르면 “문화콘텐츠의 의미는 3가지 구조를 통해 생성된다. 문화콘텐츠의 컨셉은 비주얼 이미지가 포착되는 표층구조에서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이 창출되는 서사구조, 그리고 콘텐츠의 핵심 컨셉을 창출하는 원동력인 문화코드가 숨겨진 심층구조에서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영순 외, 2004: 461-463)

<표 5> 문화콘텐츠의 의미생성 모델

1단계	2단계	3단계
표층구조	서사구조	심층구조
문화 콘텐츠의 시각기호와 채널	문화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문화 콘텐츠의 정체성

*출처 : 김영순 외(2004: 461-463) 참고

여기에서 표층구조는 시각적인 비주얼 이미지로 제시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공간에 존재하면서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장소자산 분석과 연결된다. 서사구조는 표층구조와 심층구조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며, 심층구조에서 설정된 가치들을 서사적인 이야기 형태로 제시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공간의 대표 스토리를 발굴하는 스토리 발굴 단계와 연결된다. 심층구조는 핵심가치를 제시하는 단계로 가치를 창출해 내는 단계이다. 따라서 공간을 상징화하여 의미를 제시하는 공간 기획 단계와 연결된다. 따라서 의미생성 모델의 표층구조, 서사구조, 심층구조를 공간 스토리텔링의 각 단계에 적용하여 장소성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장소요소의 분석을 통해 도출해 낼 수 있는 장소성이다.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장소성으로 생태, 역사, 문화, 오락 등의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소성이다. 이것을 표층적 장소성이라 할 수 있다. 표층적 장소성은 외면적으로 그 장소를 대표할만한 하다고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성을 갖는 곳이 다수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공간의 스토리 발굴을 통해 도출해 낼 수 있는 장소성이다. 제시되는 스토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을 서사적 장소성이라 할 수 있다. 서사적 장소성은 표층적 장소성을 강화시키고, 심층적 장소성의 의미를 이해시킬 수 있어 다른 곳과 차별화를 위해 제시되는 장소성이다.

세 번째 단계는 장소와 스토리를 연결시켜 공간을 상징화하여 도출해 낼 수 있는 장소성이다. 공간에서 핵심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치체계로서 심층적 장소성이라 할 수 있다. 심층적 장소성은 표층적 장소성을 서사적 장소성을 통해 심화시켜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 차별화되며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장소성이다. 이 장소성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재방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한 장소성 형성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6> 공간 스토리텔링의 프로세스

1단계	2단계	3단계
장소자산 분석	스토리 발굴	공간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환경적 요소 - 인적·문화적 요소 - 정서적·상징적 요소 - 상대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 목록 작성 - 테마 스토리 발굴 - 스토리 테마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의미화 - 공간 구성
표층적 장소성 형성	서사적 장소성 형성	심층적 장소성 형성

위의 프로세스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지인 제주도 대정성지 일대의 공간 스토리텔링을 실시하고 장소성을 도출해보도록 하겠다.

Ⅲ. 제주도 대정성지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한 장소성 형성

1. 대정성지의 장소자산 분석과 표층적 장소성

1) 대정성지 일대 개관

대정성지는 과거 대정현 관청이 있던 곳으로 방어를 위해 쌓은 대정현의 성벽 내부의 공간을 지칭한다. 제주도 남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제주시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1시간 가량 소요된다.

1416년 동서가 긴 제주도의 형태 때문에 방어에 어려움이 있어 동·서를 대정현과 정의현으로 나뉘었는데, 서쪽의 방어를 위해 설치한 현이 대정현이다. 이 곳은 조선 말기까지 제주도 서쪽 지역을 관리하는 중심지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정현은 역사적으로 극악의 유배지로 유명했다. 한양에서 2,000리에 걸친 거리와 험난한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죄인을 보내는 곳으로 활용되었다. 이 밖에 대정향교를 중심으로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여기에는 학식이 높은 유배인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1864년 대정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15년 군제가 폐지되면서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1945년 광복 후에 남제주군이 설치되면서 남제주군 대정읍에 속하게 되었으나, 남제주군청, 대정면사무소 등의 행정기관이 다른 지역에 설치되면서 행정의 중심 역할을 내주게 되었다. 현재 대정성지를 비롯한 인근에는 대정읍 5개리로 불리는 보성리, 안성리, 인성리, 구억리, 신평리 다섯 마을이 인접해 있다.

대정성지 주변으로 오름인 단산과 모슬봉이 있으며, 멀지 않은 곳에 산방산이 위치하고 있다. 구억리와 신평리 주변에는 제주도의 특이한 식생지대인 꽃자왈이 넓게 자리하고 있었으나,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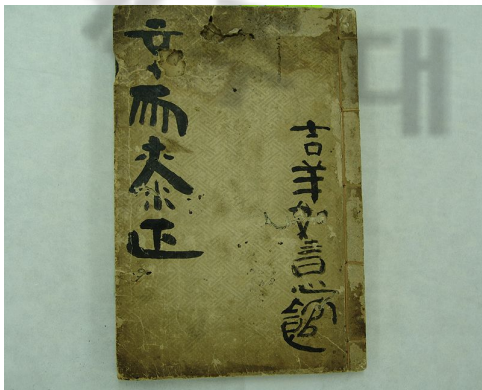
(1) 문화재 현황

대정성지 일대의 문화재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제주도 지정문화재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는 추사유배지가 사적 제487호로 지정되어 있고, 예산 김정희 종가유물 1괄이 보물 제547-2호로 지정되어 있다.

<표 7> 대정성지 일대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보물	547-2	예산 김정희 종가유물 일괄	제주특별자치도(26점)
사적	487	추사유배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61-1 번지 일원

*출처 : 문순덕·고희송(2010: 9)



*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그림 6> 예산김정희종가유물 중 『신해년책력』의 추사 김정희 필적

제주도 지정문화재로는 대정향교⁵⁾가 유형문화재로, 구억리에 살고 있는 허벽장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대정성지와 구억리 노랑굴·검은굴 등의 도요지가 기념물로, 대정성지 곳곳에 남아있는 돌하르방과 인성리에 조성된 방사탑이 민속자료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5) 대정향교는 연구대상지에서 벗어나 있으나 과거 대정성지 안에 위치했었고, 대정현의 중요 교육기관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포함시켰다.

<표 8> 대정성지 일대 도지정문화재 현황

종별	지정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유형문화재	4	대정향교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126
무형문화재	14	제주도 허벅장 (신창현)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717
기념물	12	대정성지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 안성, 보성리
	58-1	구역리 노랑굴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721
	58-2	구역리 검은굴	서귀포시 대정읍 구역리 1055
	58-3	신평리 도요지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59-1
민속자료	2-34	돌하르방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246
	2-35	돌하르방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586-2
	2-36	돌하르방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586-29
	2-37	돌하르방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139
	2-38	돌하르방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29-1
	2-39	돌하르방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0	돌하르방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1	돌하르방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752
	2-42	돌하르방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248
	2-43	돌하르방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61-1
	2-44	돌하르방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61-1
	2-45	돌하르방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211-1
	8-16	인성리방사탑 1호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497
	8-17	인성리방사탑 2호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490-1

*출처 : 문순덕·고희송(2010: 15-23)



<그림 7> 대정향교

(2) 유적 현황

대정성지 일대의 역사 유적 중에는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유적들과, 현재 남아 있지는 않지만 과거 존재했던 대정현 관련 관청 건물터 등이 있다.

<표 9> 대정성지 일대 유적 및 관청터 현황⁶⁾

유적	유형	소재지
동계정은 유허비	비석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보성초등학교 입구
추사 김정희 유허비	비석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추사유배지 내
삼의사비	비석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추사유배지 앞
군수 김공몽구 연무건정비	비석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마을동쪽 삼거리
현감 박공상을 선정비	비석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마을동쪽 삼거리
사상 백공희수 거사비	비석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29-1

6) 서귀포문화원에서 발행한 『우리고장의 유적들』 (2010)을 참고하여 대정읍 5개리와 관련된 유적을 정리하였다. 이 중 '삼의사비'와 '정난주 마리아 묘'는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대정성지 관련 유적으로 고려하여 추가하였다. 특히 정난주 마리아 묘는 연구대상지에서 벗어나 있으나 정난주가 유배인으로서 대정현의 관노로 생활하였다는 점에서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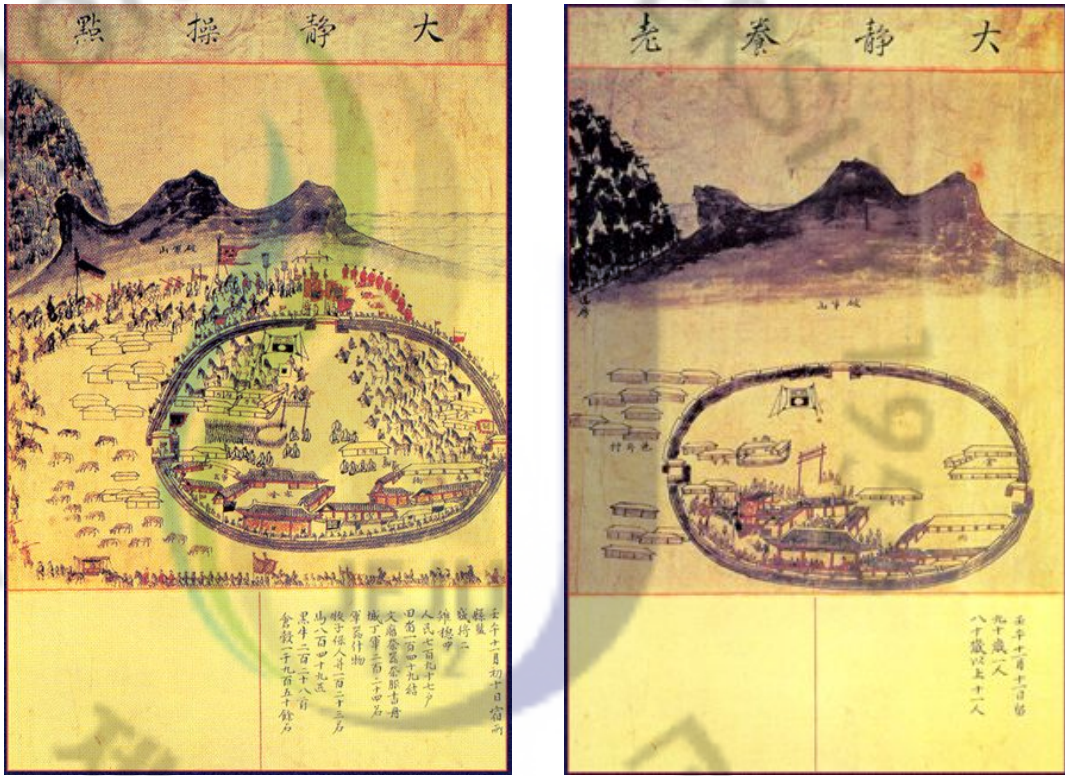
유적	유형	소재지
효자 박창진문	비석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전 구억분교 앞
열녀 오씨지문	비석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137-1
홍살문거리	거리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보성리 일대
동헌 터	터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29-1
객사 터	터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77-1
송죽서원 터	터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86
보성향사 터	터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80
창 터	터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51
사직단 터	터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176-6
성황단 터	터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168
여제단 터	터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477-2
사장 터	터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08-1 일대
향청 터	터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229
정난주 마리아 묘	묘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6

(3) 역사 기록물 현황

대정성지와 관련된 역사 자료로는 『탐라순력도』의 「대정조점」, 「대정양로」 등 대정관련 내용을 비롯하여, 추사 김정희의 『완당전집』, 동계 정은의 『동계집』 등 유배인들의 문집에 기록된 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 『제주읍지』 등에 나타난 대정현 관련 기록 자료 등이 있다. 안성리에는 140여 년간(1780~1922) 전해 온 향촌 사회의 신분구조와 호구의 구성 및 신분 계층의 변동, 가족구성, 혼인관계 등이 기록된 「호적중초」, 제주목사가 내린 마을운영규칙인 「절목」 등의 문서가 보존 되어 있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제3호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되기도 했다.

<표 10> 대정성지 관련 역사 자료 현황

역사 자료	유형	내용
탐라순력도	그림	대정조점, 대정배전, 대정양로, 대정강사
추사 김정희 완당전집	책	한시, 편지 등
동계 정은 동계집	책	한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 제주읍지, 제주통사, 제주대정정의읍지 등	책	대정현 관련 내용
호적중초, 절목, 교지 등	문서	호적자료, 마을운영 규칙 등



*출처 : 탐라순력도 홈페이지

<그림 8> 탐라순력도의 대정 관련 자료

(4) 역사적 사건

대정현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다. 19세기 후반부터 민란이 여러 번 일어났고, 일제시대에는 일본군의 군사진지로 사용하기 위해 비행기 경납고, 지하병커, 갱도진지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되었던 곳이며, 4·3사건의 현장이 남아있는 곳이다.

대정현에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강제검의 난, 방성철의 난, 이재수의 난 등의 민란이 연이어 일어났다. 그 중 이재수의 난은 천주교도들의 무리한 교세확장과 중앙의 조세수탈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란으로 신축민란이라고도 한다. 이재수, 강우백, 오대현 세 장두를 중심으로 한 민란군은 세력이 확대되어 한 때 제주성을 점령하기까지 하였으나,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에 의해 이재수 등 장두 3인을 체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제주추사관 앞에는 세 장두를 기리기 위한 ‘삼의사비’가 세워져 있다.



<그림 9> 제주대정 삼의사비

일제시대에 이르러 일본군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제주도를 최후의 방어지로 정하고 많은 수의 일본군을 주둔시켰다. 그리고 미군 등이 상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안 곳곳에 군사기지를 조성하였다. 대정성지 남쪽에 위치한 모슬포 부근에는 일제시대 일본군의 방어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군사시설이 다수 남아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갯도진지이다. 대정성지에서 가까이 위치한 오름인 단산에도 이러한 갯도진지가 남아있어 일제시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대정지역은 제주도 이데올로기의 아픈 역사인 4·3사건의 흔적도 남아있다. 7년 여에 걸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 중에 대정지역의 중산간에 위치한 마을이 소개령으로 사라졌으며, 많은 민간인이 학살되기도 하였다. 당시 무장대의 사령관이었던 김달삼은 대정현 출신 사회주의 운동가 강문석의 사위로 알려져 있다. 강문석은 추사 김정희가 머물던 유배지 주인이었던 강도순의 증손자이다.

이처럼 대정성지 일대는 대정현이 설치되면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존재하는 곳이다. 대정현 주변 5개리 마을의 주민들은 이러한 대정현의 역사와 문화, 예술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대정고을역사문화예술보존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대정성지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조선시대 대표적인 예술가 추사 김정희를 기리기 위해 매년 “대정고을 추사문화예술제”를 개최하여 추사 김정희 유배행렬 재현, 서예대전 등의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5) 장소자산의 분석

앞서 조사된 대정성지의 장소자산을 장소요소별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1> 대정성지 일대의 장소자산 분석⁷⁾

장소의 요소	장소 자산 분류	장소 자산	성격
물리적· 환경적 요소	물리적 자산	제주추사관, 제주옹기박물관	역사 문화 예술
	환경적 자산	오름, 꽃자왈	생태
인적·문화적 요소	사회·문화적 자산	문화재(유배지, 옹기 가마터, 돌하르방, 대정현 성벽, 방사탑 등), 유적, 역사 기록, 추사문예예술제, 제주전통옹기축제,	역사 문화 예술 민속
	정치·제도적 자산	국가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지정, 기록사랑마을 지정, 대정성지 복원계획	역사 문화
정서적· 상징적 요소	상징적 자산	대정고을역사문화예술보존회 운영	역사 문화 예술
상대적 요소	위치적 자산	과거 제주도 서쪽지역의 중심지	역사
	잠재적 자산	유배지, 민란, 4.3사건 등의 역사적 사건	역사 교육
	상대적 가능성 자산	옛 대정현 관청 건물	역사

7) 대정성지 장소자산의 분석은 백선희(2005)의 분류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다.

대정성지 일대의 장소자산은 대부분 역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대정성지가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축적된 대정성지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문화재와 유적, 기록 및 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대정성지는 역사적 가치가 높다. 따라서 대정성지의 표층적 장소성은 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성은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격을 가진 다른 장소와 비교해서 차별성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표층적 장소성인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대정성지만의 특화된 의미 제시를 통해 장소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정성지의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는 장소자산의 스토리를 파악해야 한다. 시공간을 통해 축적된 각각의 스토리는 다른 곳과 차별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를 발굴하여 특화된 장소성을 도출할 수 있다.

2. 대정성지의 스토리 발굴과 서사적 장소성

대정성지의 스토리 발굴 과정⁸⁾은 장소자산을 중심으로 스토리 목록을 작성하고, 그 중 대표 스토리를 발굴한 후 스토리의 테마를 추출해 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1) 스토리 목록 작성

대정성지 일대의 역사성과 관련된 장소자산을 분류해 보면 대체적으로 대정현의 관청과 관련된 자산, 유배인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 돌과 관련된 자산, 제주옹기와 관련된 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스토리 목록을 유배문화 스토리, 제주옹기문화 스토리, 돌문화 스토리로 작성할 수 있다. 대정현의 관청과 관련된 자산들은 현재로서는 실제 남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8) 스토리 발굴 과정은 “스토리텔링 개념을 활용한 장소마케팅(최인호·임은미, 2008)” 단계의 “스토리 발굴” 단계를 따랐다.

(1) 유배문화 스토리

제주도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배지였다. 대정현 역시 대표적인 유배지로 활용되었는데, 대정현에 유배된 대표적인 인물로는 광해군의 실정에 대해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된 동계 정온과 천주교 박해 사건과 연관되어 유배된 정난주 마리아 그리고 세한도와 추사체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가 있다.

<표 12> 대정지역 대표 유배인

유배인	유배시기	유배기간 동안의 활동	비고
동계 정온	광해군 (1614~1623)	독서활동, 교육활동, 창작활동	10년 동안의 유배생활 후 인조반정으로 해배되어 정계에 복귀
정난주 마리아	순조 (1801~1838)	1952 종교활동, 관노생활	37년 동안 유배 후 제주에서 사망
추사 김정희	헌종 (1840~1848)	독서활동, 교육활동, 창작활동	9년 동안의 유배생활 후 해배되어 돌아감

① 동계 정온의 스토리

동계 정온은 1614년 광해군의 동생인 영창대군이 강화부사에 의해 죽자, 강화부사의 처벌과 당시 일어나고 있던 폐모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광해군은 동계 정온을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를 보냈다. 정온은 대정현 동문 막은골이라고 불리는 곳에 위리안치되었다.⁹⁾ 그가 남긴 “대정현 동문 안에 위리안치 된 내력을 적은 기문(大靜縣東門內圍籬記)”에는 당시 유배 상황과 유배지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다. 그는 10년 동안 대정현에서 생활하면서 독서활동에 매진하였다. 대정현감 김정원이 서재용으로 지어준 두 칸의 집에서 지방 유생들을 가르쳤고, 지방 사람들에게 예를 가르치고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였다. 인조반정(1623년)으로 광해군이 축출되자 유배에서 풀려났으며, 병

9) 위리안치는 유배인을 특정 지역으로 옮긴 후 집 주위에 가시울타리를 설치하여 그 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자호란 때에는 명나라와의 의리를 중시하여 청나라와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제주에서는 제주목에 위치한 굴림서원(橘林書院)에 그를 배향하여 제주오현¹⁰⁾의 한 사람으로 추앙하였다. 그 후 약 200년 뒤에 대정현에 유배를 왔던 김정희가 제주목사 이원조에게 청하여 그가 유배생활을 했던 막은골, 지금의 안성리에 그를 기리는 송죽사(松竹祠)와 유허비를 세웠다. 현재 송죽사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유허비는 보성초등학교 앞으로 옮겨 세워져 있다.¹¹⁾

<표 13> 동계 정은 관련 스토리

구분	관련 내용
동계 정은의 유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에 유배된 사연(광해군 비판) ◦ 유배지의 기록 ◦ 대정현감이 지어 준 서재 ◦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지은 「덕변록」 ◦ 유배 중에 쓴 한시와 편지 ◦ 다른 유배인들과 교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오현으로 추앙(굴림서원에 배향) ◦ 동계정은 유허비 설치 ◦ 송죽사 세움

10) 제주오현은 제주에 있는 동안 많은 영향을 끼친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은, 우암 송시열 다섯 인물을 말한다. 제주 사람들은 이 다섯 인물을 '오현'이라하여 추앙하였다.

11) 서귀포문화원에서 발행한 『우리고장의 유적들』(2010)에 나와 있는 “동계정은 선생 유허비” 관련 내용을 참고



<그림 10> 동계 정은 유배지



<그림 11> 동계정은 유허비

② 정난주 마리아의 스토리

당대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의 조카인 정난주는 천주교를 믿었던 집안의 영향으로 천주교에 입교했다. 남편 황사영은 1801년 일어난 신유박해의 참상과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황사영백서’를 작성하여 외국으로 보내려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능지처참을 당했다. 그로 인해 정난주는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되어 30여년 간 유배생활을 했다. 대정현 관노로 유배된 정난주는 고된 유배생활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었고, 풍부한 교양과 뛰어난 학식으로 주민들을 교화하여 노비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칭송을 받았다. 그녀는 유배 생활 38년째인 1838년 병환으로 숨을 거뒀는데 그녀를 흠모하던 이웃들이 유해를 안정하여 지금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천주교구는 제주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정읍 동일리에 정난주 마리아 묘를 조성하고 천주교 성지로 조성하였다.¹²⁾

12) 정난주 마리아 묘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의 내용을 참고

<표 14> 정난주 마리아 관련 스토리

구분	관련 내용
정난주 마리아 유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약용 집안과 천주교 입문 ◦ 제주에 유배된 사연(황사영백서 사건) ◦ 추자도에서 아들과 이별 ◦ 유배지에서의 생활 ◦ 천주교 전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색의 순교자 ◦ 추자도 황씨와 오씨 집안의 내력 ◦ 천주교와 이재수 난



<그림 12> 정난주 마리아 묘

③ 추사 김정희 스토리

추사 김정희는 1840년 안동김씨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대정현으로 유배를 당했다. 그는 1848년까지 8년 3개월 동안 대정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독서활동과 교육활동, 예술활동에 전념했다. 역관 이상적을 통해 중국의 선진 문물에 대한 서적을 구해보았고, 소치 허련을 비롯한 많은 제자를 길렀으며, 국보 제180호로 지정된 세한도를 그려내고, 추사체의 기틀을 완성했다. 추사 김정

희는 유배시절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의 문집인 『완당전집』의 대부분의 자료가 이 때 남긴 편지이다. 현재 대정성지에는 추사의 유배를 기념하는 제주추사관과 복원된 추사유배지가 있다. 제주추사관에는 추사가 유배시절 대정향교에 써주었던 “의문당” 현판을 비롯하여 추사 김정희와 주변 인물들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표 15> 추사 김정희 관련 스토리

구분	관련 내용
추사 김정희 유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에 유배된 사연(안동김씨의 모함) ◦ 유배길에서 초의선사와의 만남 ◦ 유배길에서 창암 이삼만과의 만남 ◦ 제주도 입도 이야기 ◦ 유배지의 기록 ◦ 유배지에서 쓴 편지(가족, 친구, 지인) ◦ 유배지에서 쓴 한시(돌하르방, 말방아, 제주수선화 소재) ◦ 유배지에서 쓴 글씨(일로향실, 의문당 등) ◦ 추사와 수성(남극노인성) ◦ 차를 통한 인연 ◦ 제자 소치 허련의 방문과 「해천일립상」 ◦ 제자 박혜백과 『완당인보』 ◦ 제자 이상적과 「세한도」 ◦ 추사체의 완성 ◦ 음식과 건강 ◦ 부부애 ◦ 동계 정은 유희비 설치 건의 ◦ 정약용 집안과의 친분과 정난주 마리아 ◦ 물 관련 이야기(세미물, 안덕계곡) ◦ 제주도 제자들 이야기

구분	관련 내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도순의 증손자 강문석의 사회주의 운동과 4·3사건 ◦ 한·중·일을 거친 세한도의 이동 경로 ◦ 대정고을 추사문화예술제 및 추사체 연구회의 활동



<그림 13> 제주추사관



<그림 14> 추사유배지

(2) 제주옹기문화 스토리

대정성지 인근의 구억리와 신평리는 1950년대 전후까지 제주옹기의 생산지였다. 구억리의 경우 대부분이 옹기 관련 일에 종사했을 정도였으나, 1970년대 이후 옹기 사용이 점차 줄어들면서 그 맥이 끊겼다가 최근들어 옹기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억리 및 신평리에는 제주옹기를 구웠

던 가마의 형태가 아직 남아있다. 노랑그릇을 굽던 가마는 ‘노랑굴’, 검은그릇을 굽던 가마는 ‘검은굴’이라 불렀는데, 현재 도지정 기념물로 구억리의 노랑굴과 검은굴, 신평리의 도요지 등이 지정되어 있다. 특히 구억리의 ‘검은굴’은 현재 유일하게 이곳에만 남아있는 가마로 특성이 잘 나타나있어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제주전통옹기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¹³⁾ 구억리에서는 폐교(구 구억분교)에 제주옹기박물관을 개관하여 제주옹기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수집된 제주옹기를 전시하고 있다.

<표 16> 제주옹기 관련 스토리

구분	관련 내용
제주옹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옹기의 역사 ◦ 제주옹기의 특징 ◦ 제주옹기 제작 방법 ◦ 제주옹기의 종류 ◦ 옹기 굽는 가마인 노랑굴과 검은굴 이야기 ◦ 옹기 장인들의 이야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옹기박물관 건립 과정의 이야기



<그림 15> 구억리 노랑굴



<그림 16> 구억리 검은굴

13) 제주서부농촌관광협의회에서 발간한 『제주농촌에서 놀자』 (2010)의 제주옹기박물관 관련 글을 요약하였다.



<그림 17> 제주옹기박물관

(3) 돌문화 스토리

대정현에는 돌담, 돌하르방, 방사탑, 대정성벽 등 돌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유산이 존재한다. 그 중 돌담은 바람이 잦은 제주의 환경을 고려하여 구멍이 뚫리게 쌓아놓은 것이 특징으로 그 형태는 과거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현대에 이르러 다시 쌓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정성지의 돌문화 스토리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돌하르방, 방사탑, 대정성벽을 꼽을 수 있다.

① 돌하르방 스토리

돌하르방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상징물로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의 성문 밖에 세워 수호신적 기능, 주술·종교적 기능 등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의 돌하르방의 모습이 각각 달라 지역마다의 특색을 보여준다.

대정현의 돌하르방은 동문, 서문, 남문 밖에 4기씩 12기가 세워져 있었으며, 전체적인 형태가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진 않으나 친근한 느낌을 준다고 한다. 대정현에는 성문 밖에 세웠던 12기의 돌하르방과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1기를 합해 모두 13기의 돌하르방이 남아있으며 미완성 돌하르방을 제외한 12기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¹⁴⁾

14) 남제주문화원이 발간한 『대정읍지』(2006)의 돌하르방 부분을 참고

<표 17> 돌하르방 관련 스토리

구분	관련 내용
돌하르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하르방 제작과 관련한 역사 기록 ◦ 돌하르방의 기능 ◦ 돌하르방의 이름 ◦ 대정현 돌하르방의 특이한 모습 ◦ 대정현 돌하르방의 위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하르방 관련 신앙



<그림 18> 대정현 돌하르방

② 방사탑

방사탑은 마을 어느 한 방위에 불길한 징조가 비치거나, 기운이 허하다고 믿는 곳에 액운을 막으려고 세운 돌탑이다. 제주도 전역에 38기의 방사탑이 남아 있으며, 그 중 17기가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대정읍에는 인성리에 3개의 방사탑이 세워져 있으며, 그 중 두 개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인성리 방사탑은 마을에 풍수지리 상의 액운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돌탑 위에는 사람이나 새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놓기도 하는데, 인성리의 방사탑은 사람 모양의 형상이 세워져 있다. 방사탑은 마을의 안녕을 보장하고 수호하며 전염병의 예방, 화재예방, 해상의 안전과 아이를 낳게 하고 보호해주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

<표 18> 방사탑 관련 스토리

구분	관련 내용
방사탑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탑의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 ◦ 방사탑의 기능 ◦ 인성리 방사탑의 모습 ◦ 인성리 방사탑의 설치유래



<그림 19> 인성리 방사탑 2호

③ 대정현 성벽

대정읍 보성리, 안성리, 인성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대정현 성벽은 대정현이 설치되고 2년 후인 1418년 대정현감 유신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한다. 성벽의 둘레는 약 1,400m이고, 높이는 약 5m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었으나, 후에 북문은 폐쇄되었다. 외적의 공격이나 침입을 막기 위해 성곽 주변에 파놓은 해자(垓字) 시설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¹⁵⁾ 1910년 일제의 읍성 철폐령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으나, 여러차례 복원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

15) 인성리방사탑 안내판을 참고

16) 추사유배지 리플렛 내용을 참고

<표 19> 대정현 성벽 관련 스토리

구분	관련 내용
대정현 성벽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정현 성벽 건축 관련 이야기 ◦ 대정현 성벽의 기능 ◦ 대정현 성벽의 구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정현 성내 관청



<그림 20> 대정현 성벽

2) 대표 스토리 발굴

대정성지 주변의 대표 스토리는 표층적 장소성으로 역사성을 내세울 수 있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스토리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대정성지 일대의 장소를 아우를 수 있는 스토리를 선택해야 한다. 스토리 목록의 각 스토리의 분석을 통해 각 스토리의 장·단점을 도출한 후 상호 비교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대표 스토리를 발굴할 수 있다.

① 유배문화 스토리

조선시대 대표 유배지인 제주도 전역에는 유배인과 관련된 공간이 다수 존재한다. 유배인 관련 유적은 과거 제주목과 대정현이 있었던 곳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표 20> 유배문화 스토리 분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배인 유적 존재 - 유배인의 높은 인지도 - 제주추사관 건립 - 유배문화의 교육적 효과 - 유배인과 관련된 스토리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배 유적간 연계성 부족 - 유배의 부정적 이미지 - 유배인에 대한 관심 부족

② 제주옹기 스토리

대정 지역은 제주옹기의 생산의 중심을 담당했던 곳으로 과거 제주옹기를 구웠던 가마터인 검은굴과 노랑굴이 남아있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제주옹기 관련 장인들이 아직 살아있고, 옛 구억분교에 제주옹기박물관을 개관하여 관련 유물과 제주옹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주옹기 유적인 가마터는 대정성지 주변 외에 다른 곳에도 존재하고 한경면 조수리에 제주옹기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시 애월읍에 대규모 옹기박물관을 비롯하여 전시판매장, 숙박시설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곳이 조성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차별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표 21> 제주옹기문화 스토리 분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옹기 옛가마터 존재 - 제주옹기 장인 존재 - 제주옹기박물관 개관 - 옹기 체험 가능 - 제주옹기 관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지역 제주옹기마을 운영 - 대규모 옹기박물관 조성 계획 - 제주옹기에 대한 이해도 낮음 - 옹기 자체의 차별화 부족

③ 돌문화 스토리

대정성지 주변에 세워져 있는 돌하르방은 총 12기로 보존 상태도 양호하며, 인성리 방사탑은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대정성벽 역시 복원을 통해 많은 부분을 복구해 놓아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북촌돌하르방공원, 돌문화공원, 돌미로공원 등 돌문화 관련 관광지와 방사탑이 다수 존재하며, 현대적인 돌하르방과 방사탑 조성이 많이 이루어져 차별성이 약하다. 대정성벽의 경우 성벽 자체의 스토리 보다는 대정현의 역사적 스토리와 연관시켜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표 22> 돌문화 스토리 분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정현만의 특이한 돌하르방 존재 - 인성리 방사탑 유적 존재 - 대정현 성벽 형태가 잘 남아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문화 관련 관광지 다수 존재 - 타 지역과 차별성이 약함 - 관련 스토리 부족

이러한 스토리 목록의 분석을 통해 각 스토리의 장·단점을 뽑아낼 수 있다. 김의숙과 이창식은 문화관광 상품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성, 희소성, 차별성, 이벤트성, 경제성, 인지도와 같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하였다(김의숙·이창식, 2008: 62-65). 이러한 기준은 공간의 스토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스토리를 하나의 상품과 동일하게 본다면 위와 같은 요소들을 충족하는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공간을 기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정성지의 스토리에서 파악한 장·단점을 토대로 각 요소를 얼마나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아야 한다.

<표 23> 대정성지 스토리의 상품성 분석¹⁷⁾

구분	유배문화 스토리	제주옹기 스토리	돌문화 스토리
문화성	유배인과 관련한 문화 전달	제주옹기와 관련한 문화 전달	돌과 관련한 문화 전달
차별성	유배라는 차별화된 테마	-	-
희소성	추사 김정희의 유일한 유배지	-	대정현 돌하르방의 독특한 모습
이벤트성	추사문화예술제 개최	제주전통옹기축제 개최	-
경제성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효과	옹기 제작 판매로 인한 약간의 경제효과	-
인지도	유배지로서 대정의 인지도와 유배인의 인지도 모두 높음	-	돌하르방은 유명하나 대정현 돌하르방은 잘 알려지지 않음
연계성	유배인 상호간의 연계 가능 도·내외 다른 유배지와 연계가능	-	-
확장성	유배인 삶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가능	-	캐릭터 등으로 확대 가능

17) 김의숙과 이창식은 문화상품의 조건으로 문화성, 희소성, 차별성, 이벤트성, 경제성, 인지도를 꼽았다. 본 논문에서는 스토리텔링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계성과 확장성을 추가하였다.

위의 표에서 볼 때 유배문화 스토리가 각 요소를 가장 많이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대정성지의 대표 스토리는 유배문화 스토리라 할 수 있다.

3) 스토리 테마 추출

테마는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순식간에 떠올리게 하는 요소이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관광객들이 체험함으로써 그 장소를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공간의 대표성을 띤다. 따라서 대표 스토리인 유배문화 스토리 중에도 중심이 될 테마를 추출해야 한다.

일반적인 공간 스토리텔링에서는 성격이 다른 다양한 스토리를 공간적으로만 연결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단절되어 방문객들이 몰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계 정은, 정난주 마리아, 추사 김정희 중 한 명을 테마 인물로 삼아 그 인물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 공간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공간 스토리텔링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때 선정 기준은 인물의 인지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대정성지 일대의 여러 공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하며,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가 남아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높은 인지도를 통해 사람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좀 더 많은 공간을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정성지의 각 유배인의 인지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간, 스토리의 기반이 되는 자료 등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24> 대정지역 유배인 관련 분석

유배인	인지도	관련 공간	관련 자료
동계 정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음	동계 정은 유배지, 동계 정은 유허비, 대정현청 터	『동계집』의 편지와 한시 등

유배인	인지도	관련 공간	관련 자료
정난주 마리아	천주교 내에서는 백색의 순교자로 유명	정난주 마리아 묘, 대정현청 터	-
추사 김정희	세한도와 추사체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짐	제주추사관, 추사유배지(1차, 2차), 동계정은 유희비, 대정향교, 대정현청 터, 정난주 마리아 묘	『완당전집』의 편지, 한글편지 한시, 그림 등

대정성지 주변의 유배 유적 중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유배지가 복원되어 있고, 추사 김정희를 테마로 한 제주추사관이 건립되어 있으며, 대정향교를 비롯한 여러 공간이 추사 김정희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다른 유배인들보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으며 동계 정은, 정난주 마리아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추사 김정희 유배생활의 스토리가 대정성지 일대의 스토리 테마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대정성지의 다양한 스토리 분석을 통해 대표 스토리로 발굴한 추사 김정희의 유배의 공간이라는 스토리의 테마는 서사적 장소성과 연결된다. 따라서 표층적 장소성인 역사성을 추사 김정희라는 인물로 강화시키고, 그의 유배생활의 스토리를 통해 차별화된 공간의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다.

추사 김정희의 유배 공간이라는 서사적 장소성으로 인해 공간 자체는 차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공간을 통해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의미를 제시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공간과 스토리를 연계하여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석해 내야 한다. 이러한 의미는 공간에 한 차원 높은 상징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의미 공간으로의 장소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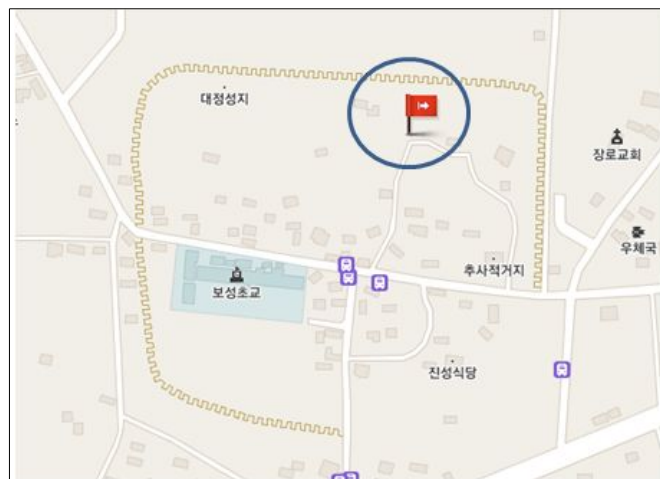
3. 대정성지 공간 기획과 심층적 장소성

1) 대정성지 공간의 의미화

공간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스토리와 공간과의 연관성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스토리 테마로 선정된 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을 중심으로 관련된 공간과 스토리를 연결하여 공간의 새로운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문화콘텐츠의 의미생성모델의 활용이 가능하다. 1차적으로는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표층적 의미를 제시하고, 공간과 관련된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서사적 의미를 제시한 후,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심층적 의미로 확장시킬 수 있다.

(1) 추사 김정희의 첫 번째 유배지(송계순의 집터)

송계순의 집은 추사 김정희가 대정현에 도착하여 첫 번째로 머물렀던 유배지이다. 그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는 제주에 오기까지의 여정과 배정받은 집의 모습, 위리안치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다. 추사 김정희는 편지를 통해 “초가집의 한 구석도 분수에 지나지치다고 하겠네(민족문화추진회, 1996: 118)”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권세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넓은 집에서만 생활하던 추사 김정희가 초가집의 한 구석조차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을 정도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추사의 첫 번째 유배지 위치(송계순 집터)

<표 25> 추사의 첫 번째 유배지와 관련된 스토리

구분	관련 내용
추사 김정희 유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사 김정희가 안동 김씨 세력의 모함에 의해 대정현으로 유배를 오게 됨. ○ 험한 바닷길을 하루만에 건너 화북에 도착한 후 제주목관아를 들러 대정현에 도착함. ○ 첫 번째 유배지인 송계순의 집에 위리안치를 당함. ○ 제주 전통 초가집인 두거리 집의 외사(外舍)에 머무르게 된 추사는 위리안치의 상황에서 마당과 뜨락을 걸어다니고, 밥 먹고 할 수 있어 죄인 신분인 자신의 분수에 지나치다고 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배 오는 도중 창암 이삼만을 만나 서로의 글씨를 보여줌. ○ 유배 오는 도중 대흥사에 들러 초의선사를 만남. 이광사의 현판 글씨를 떼어내라고 함.

<표 26> 추사의 첫 번째 유배지 공간의 의미

공간 의미	의미 내용
표층적 의미	추사 김정희가 머물렀던 첫 번째 유배지
서사적 의미	유배를 통한 추사의 심경의 변화
심층적 의미	자만을 버린 겸손

(2) 추사 김정희의 두 번째 유배지(강도순의 집)

추사 김정희는 대정 유배시절 한 차례 거처를 옮긴다. 그 곳이 바로 현재 추사 유배지이다. 그는 이곳에서 책을 읽고, 제자를 가르치고, 편지를 통해 안부를 물으면서 유배생활을 했다.

추사 김정희는 대정현에 많던 감귤의 지조와 향기로운 덕을 칭송하며 “귤중옥”이라 이름을 붙였다. 제자 강위는 추사 김정희가 10년 간 가부좌를 튼 “달팽이집”이라 하였으며 이한우는 “수성초당”이라 하기도 했다. 국보로 지정된 세한도를 완성하고, 추사체를 연마했던 곳도 바로 이곳이다. 1984년 고증에 따라 복원하였으며 현재 추사유배지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2010년 새로 개관한 제주 추사관은 추사 김정희와 관련 인물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이 공간과 관련된 스토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힘든 생활을 했던 유배지로서의 스토리이고, 다른 하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한도와 추사체가 탄생한 예술적 완성의 스토리이다.



<그림 23> 추사의 두 번째 유배지 위치(강도순 집터)

<표 27> 추사의 두 번째 유배지와 관련된 스토리

구분	관련 내용
추사 김정희 유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사 김정희는 유배지는 ‘귤중옥’, ‘수성초당’, ‘달팽이집’ 등으로 명명됨. ◦ 유배시절 가족, 친구, 친지들에게 편지를 많이 씀 ◦ 제주의 음식이 맞지 않았던 추사는 아내에게 음식을 보내달라는 한글편지를 자주 보냄. ◦ 추사는 친구인 권돈인과 제주목사 장인식이 보내 준 인삼을 무

구분	관련 내용
	<p>먹듯이 먹으며 건강을 유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 예안이씨가 죽자 제문을 지어 보내고, 시를 지어 슬퍼함. ◦ 차를 즐겨 마셨던 추사는 초의선사에게 차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자주 보냄. 일로향실이라는 글씨도 써서 보내줌. ◦ 제자인 소치 허련은 여러 번 제주를 방문하여 추사와 함께 생활하였으며, 추사의 유배시절 모습을 담은 「완당선생해천일립상」을 그림. 현종대왕의 명을 받아 그는 추사의 글씨를 받아가기도 함. ◦ 제자 박혜백이 추사의 진각들을 모아 『완당인보』를 만들 ◦ 유배시절의 심경을 읊은 한시를 창작 ◦ 우리나라에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수성(남극노인성)을 시에 자주 언급함. ◦ 추사는 역관 이상적의 도움으로 청나라의 귀한 책들을 빨리 구해 읽을 수 있었음. 책을 보내주는 이상적에게 감사의 뜻으로 세한도를 그려주었으며, 이 그림은 추사의 대표하는 작품이 됨 ◦ 추사는 유배시절 글씨 연습에 매진하여 추사체를 완성함
강도순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정지역에서 그의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재력이 있었음 ◦ 다른 곳에서는 마을마다 하나가 있던 말방아를 개인 소유할 정도였음 ◦ 강도순의 증손자인 강문석은 일제시대 때 한남의숙을 세워 교육 활동을 함. 강문석의 사위는 4·3사건 때 무장대 사령관이었던 김달삼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때 불탄 추사유배지를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복원함 ◦ 세한도는 이상적에 의해 청나라를 갔다 왔으며, 일제시대 때 일본인 추사 연구가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옴. ◦ 제주추사관에는 추사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음

<표 28> 추사의 두 번째 유배지 공간의 의미

공간 의미	의미 내용
표층적 의미	추사가 머물렀던 두 번째 유배지
서사적 의미	적응하기 힘든 유배생활 / 예술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룸
심층적 의미	절망의 공간 / 역경을 이겨낸 자기 완성의 공간

(3) 동계 정은 유배지(송죽사 터)와 동계 정은 유희비

속칭 막은골이라 불리는 이곳은 제주에 10년 동안 유배된 동계 정은이 살았던 곳이다. 이를 기리기 위해 추사 김정희가 제주목사에게 건의를 하여 동계정은 유희비를 세웠던 곳이며, 정은의 위패를 배향했던 송죽사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제주목사인 이원조가 쓴 송죽서원기(松竹書院記)가 전해지고 있어 동계 정은 선생의 유배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동계 정은의 유희비는 그 후 안성리 절동산과 보성초등학교 정문 안쪽으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송죽도서관 터였던 보성초등학교 정문 앞에 세워져 있다. 이 곳은 유배 10년 동안 부단한 독서활동을 통해, 자신을 다스렸던 동계 정은의 삶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 24> 동계 정은 유배지(상), 동계 정은 유희비(하) 위치

<표 29> 동계 정온 유배지와 관련된 스토리

구분	관련 내용
동계 정온의 유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계 정온이 광해군의 실정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려 대정현으로 유배됨. ◦ 위리안치의 형 때문에 마치 우물 속에 앉아 있는 것처럼 가시울 타리가 쳐져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울타리 서쪽 작은 구멍으로 음식을 전해 받음 ◦ 유배시절의 심경을 읊은 한시를 창작 ◦ 두 아들에게 걱정의 편지를 보냄 ◦ 당시 유배와 있던 송상인, 이익 등과 교류함 ◦ 대정현감이 작은 서재를 지어준 배려로 독서에 매진 ◦ 중국의 명언을 모아놓은 「덕변록」을 지어 스스로 반성하는 생활을 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년 후에 대정현에 유배를 온 주사 김정희의 건의로 이원조 목사가 유허비를 세움 ◦ 동계 정온을 배향하기 위한 송죽사를 세움 ◦ 유배시절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었던 동계 정온을 기리기 위해 송죽이란 명칭을 사용 ◦ 제주의 오현으로 추앙되어 굴림서원에 배향됨

<표 30> 동계 정온 유배지 공간의 의미

공간 의미	의미 내용
표층적 의미	동계 정온의 유배지 / 동계정온 유허비
서사적 의미	동계 정온 선생이 10년 동안의 유배생활을 독서활동을 통해 이겨냄
심층적 의미	역경의 극복

(4) 대정향교

대정향교는 1416년 대정성지 내에 세워졌다가 1653년에 단산 아래 현재 자리로 옮겨졌다. 추사 김정희는 유배시절 제주의 유생을 가르치러 이 곳을 다녔다고 한다. 또한 그는 기숙사인 동재에 “항상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학문에 정진하라”는 뜻의 “의문당”이라는 현판 글씨를 써주기도 했다.

현재 “의문당” 진품은 제주추사관으로 옮겨져 전시되고 있고, 대정향교 동재에는 모사품이 걸려있다. 이 곳은 힘든 유배생활 속에서도 교육활동에 힘썼던 추사 김정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 25> 대정향교 위치

<표 31> 대정향교와 관련된 스토리

구분	관련 내용
대정향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사 김정희가 제주 유배 시절 대정향교에 써 준 글씨를 기숙사 현판으로 만들어 걸어둠. 항상 의문을 품고 학문에 정진하라는 의미가 담겨있음 추사 김정희가 제주유생들을 가르침

<표 32> 대정향교 공간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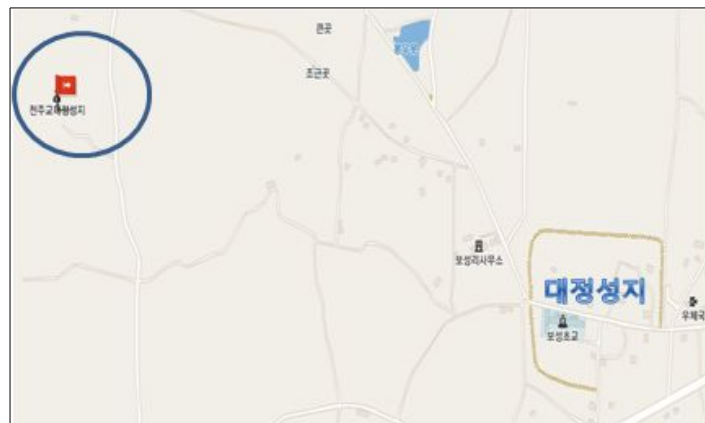
공간 의미	의미 내용
표층적 의미	추사 김정희가 유생을 가르쳤던 곳, 의문당 글씨를 써 준 곳
서사적 의미	삶에 항상 의문을 품고 정진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
심층적 의미	삶에 대한 부단한 노력

(5) 정난주 마리아 묘

정난주 마리아는 유명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조카이다. 추사는 당시 구하기 어려웠던 수선화를 고려청자에 담아 다산 정약용에게 보낼 정도로 존경하였다. 그리고 정약용의 두 아들 학연, 학유 형제와 친분을 유지하여 자주 편지를 주고 받았다.

정난주 마리아는 추사 김정희 보다 40년 먼저 대정현에 유배되었다가 그가 유배되기 2년 전에 죽어,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친지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로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난주 마리아는 종교적인 문제로 유배를 왔으면서도 신앙의 힘으로 유배생활을 견뎌내었다. 이곳은 그녀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역경을 극복한 삶의 자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 26> 정난주 마리아 묘 위치

<표 33> 정난주 마리아 묘와 관련된 스토리

구분	관련 내용
정난주 마리아 유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학자인 정약용의 형인 정약현의 딸로 태어나 천주교에 입교함. 남편 황사영의 백서사건에 의해 가족들이 모두 뿔뿔이 유배를 가게 됨 ◦ 제주도 대정현으로 유배 오는 도중 추자도를 들리게 되는데 어린 아들의 미래를 위해 일부러 놓고 떠남 ◦ 대정현 관노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칭송받아 죽은 뒤에 사람들이 묘지를 조성해 줌 ◦ 37간의 유배생활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냄 ◦ 천주교에서는 백색의 순교자로 알려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난주의 아들을 오씨 집안에서 데려다 키웠는데 그 후로 추자도에서는 오씨 집안과 황씨 집안은 한 가족처럼 여겨 혼인을 하지 않는다고 함 ◦ 추사 김정희는 존경했던 정약용의 아들인 학연, 학유 형제와 편지를 주고 받을 정도로 친분을 유지.

<표 34> 정난주 마리아 묘 공간의 의미

공간 의미	의미 내용
표층적 의미	백색의 순교자 정난주 마리아의 묘
서사적 의미	37년의 유배생활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냄
심층적 의미	역경의 극복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대정성지 일대의 공간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7> 대정성지 일대 추사 김정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간

이 공간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표적인 공간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기타 자료나 전해오는 이야기, 그가 남긴 예술작품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공간도 존재한다. 대정향교 옆에 위치한 세미물은 추사 김정희가 즐겨 마셨다고 하며, 대정성지 곳곳에 남아있는 돌하르방은 추사 김정희의 한시에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겨울에 대정성지 주변에서 피는 제주수선화의 경우 추사 김정희가 매우 좋아했으나 제주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 없애버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추사가 유배시절 매일같이 바라보았을 단산과 산방산을 비롯하여 인근의 방사탑, 추사 유배지의 주인이었던 강도순의 집안과 관련 있는 한남의숙 터 등을 간접적인 공간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8> 대정성지 일대 추사 김정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간

2) 대정성지의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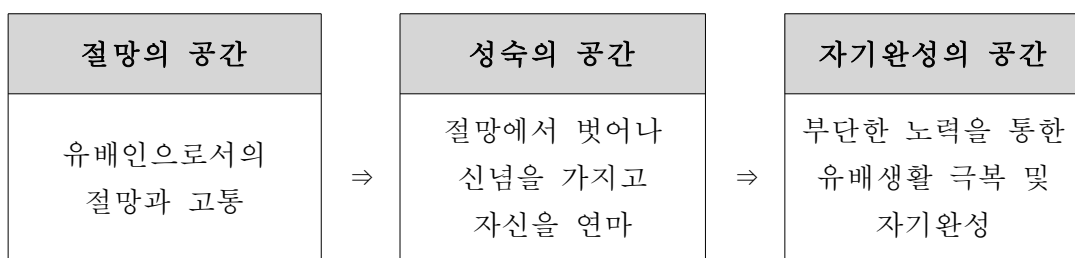
지금까지 대정성지의 각 공간과 스토리를 연결하고 의미를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의미들이 효과적으로 제시되기 위해서는 각 공간의 스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거대 서사가 필요하다. 공간 구성은 개체적 유형으로 ‘점’적인 공간과, 서사적 유형으로의 ‘선’적인 공간, 통합체적 유형으로 ‘면’적인 공간으로의 유형이 가능하다(김영순, 2010: 46). 따라서 점과 같은 공간들을, 하나의 선과 같은 서사 구조로 연결하여, 면으로 이루어진 전체 공간으로 정체성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토리 테마인 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의 유배생활에 대한 경험과 의미가 곧, 방문자의 경험으로 대치되어 제시되기 때문이다.

추사 김정희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9년의 유배기간 동안 부단한 노력으로 높은 예술적 경지에 이르러 추사체를 완성하고 세한도를 그려내었다. 또한 섬이라는 갇힌 공간 속에서도 편지를 통해 가족, 친지, 친구 등 많은 사람

들과 교류를 하였으며, 제주에서 많은 제자를 가르치며 자신의 지식을 전파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의 많은 지식인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고 학문을 넓힐 수 있었고, 이외에도 차, 전각, 그림 등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추사 김정희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인 유배기간 동안 부단한 노력을 통해 학문적, 예술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대학자이자 뛰어난 예술가로써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볼 때 추사에 있어서 유배의 기간은 자기완성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을 살펴보면 공간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누명을 쓰고 유배를 당해 대정에 도착한 유배인으로서 공간이다. 당대를 호령하던 추사 김정희가 유배인으로서 처지를 인식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때는 절망과 고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실의에만 빠져있지 않고 유배의 처지를 담담히 받아들이며, 독서활동과 교육활동, 예술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연마해 가는 공간이다. 이 때는 성숙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부단한 노력과 정진을 통해 세한도를 그리고 추사체를 완성한 예술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에 다다른 공간이다. 이 때는 자기완성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추사에게 유배지라는 공간의 의미는 ‘절망의 공간’ ⇒ ‘성숙의 공간’ ⇒ ‘자기완성의 공간’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림 35> 추사 김정희의 유배기간 동안 공간 의미 변화



공간의 스토리텔링은 일반 서사의 스토리텔링과 달리 서막-발단-전개-전환-가속-절정-결말의 7단계의 과정을 거친다.¹⁸⁾ 이에 따라 대정성지 각 장소의 스

18) 박물관과 테마파크와 같은 특수한 건축공간의 스토리텔링 구성은 5단계 플롯을 선호하는 전통 서사단계와 달리 완충 지대를 설정하여 서막-발단-전개-전환-가속-절정-결말의 7단계로 구성된다.(김현철·김용미 (1996: 30-47 참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 구성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7단계의 구성 차용하되, 연구

토리에 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의 의미 적용 통해 스토리텔링을 구성할 수 있다.

서막과 발단은 대정성지를 찾아오는 공간과 대정성지 입구, 제주추사관이 제시된다. 이 공간은 유배인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유배지로 가는 기분을 느끼고, 제주추사관에서 추사의 삶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습득하여 추사 김정희를 알아가는 단계이다.

전개는 복원된 추사유배지의 공간이 제시된다. 이 공간은 추사 김정희가 지냈던 좁은 공간을 제시하여 유배인으로서의 고통과 절망의 기분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전환은 동계 정은의 유적지인 동계 정은 유배지와 동계 정은 유허비, 그리고 정난주 마리아 묘의 공간이 제시된다. 이 공간은 추사 김정희 보다 먼저 대정현에 유배 왔던 동계 정은과 정난주 마리아의 유배생활의 이야기를 통해 신념을 잃지 않고 유배생활을 이겨낸 인물들의 위대함을 전달한다. 추사 김정희 역시 앞선 유배인들을 통해 유배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될 수 있었음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고통과 절망으로만 생각되는 유배의 의미를 자신을 단련하여 한 단계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기회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단계이다.

가속은 대정향교의 공간이 제시된다. 유배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추사 김정희의 태도 변화를 제시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느낄 수 있는 단계이다.

절정은 다시 제주추사관과 추사유배지의 공간이 제시된다. 처음에 고통과 절망의 공간으로 제시되었던 유배지에서 부단한 노력 끝에 세한도와 추사체를 완성하고 예술적 완성을 이룬 추사 김정희의 자기완성의 의미를 제시하여 유배의 시간이 자기완성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유배지 역시 초라한 공간이 아닌 위대한 예술적 완성을 이룬 공간임을 느낄 수 있는 단계이다.

결말은 대정성지를 떠나며 추사 김정희의 유배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힘든 삶 속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완성을 이루겠다는 자아의 변화를 유도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은 공간 스토리텔링 단계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지가 건축공간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의미 중심으로 각 단계에 적용하였다.

<표 36> 대정성지 일대 스토리텔링 구성도

공간 의미	공간 구분	스토리텔링 구성도	관련 장소
절망	서막 발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정성지로 향하는 동안 유배지로 가는 기분을 전달 - 제주추사관을 방문하면서 추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알고 그의 삶과 마주함 <p>⇒ 위대한 인물로서의 추사를 인식</p>	대정성지 입구 제주추사관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사유배지를 방문하여 양반이었던 추사가 좁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던 유배생활의 어려움을 인식 <p>⇒ 추사유배지 통해 절망의 공간으로 제시</p>	추사유배지
회귀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사 김정희 보다 앞서 유배된 동계 정은과 정난주 마리아의 유배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신념을 잃지 않고 힘든 생활을 이겨낸 인물들의 위대함을 느낌 <p>⇒ 유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짐</p>	동계 정은 유배지 동계 정은 유희비 정난주 마리아 묘
	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배생활 동안 절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힘써 제주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추사의 이야기를 전달 <p>⇒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학문과 교육, 예술에 매진하는 성숙의 공간으로 제시</p>	대정향교

공간 의미	공간 구분	스토리텔링 구성도	관련 장소
자기 완성	절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배생활의 부단한 노력 끝에 제한도와 추사체를 그려낼 정도의 예술적 완성을 이룸 - 추사의 유배는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예술적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전달 ⇒ 추사유배지에 대한 재의미화. 단순한 절망의 공간이 아니라 위대한 예술이 탄생한 자기완성의 공간으로 제시	추사유배지
	결말	⇒ 대정성지를 떠나며 자신의 삶의 힘들더라도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완성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됨	-

각 공간의 의미를 포함하는 거대 서사는 절망 ⇒ 성숙 ⇒ 완성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을 확장시켜 구성하였다. 위의 공간 스토리텔링의 순서에 따라 대정성지의 공간을 구성하면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대정성지의 유배문화 스토리를 모두 경험할 수 있으며, 대정성지 일대를 하나의 서사를 기반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을 기반으로 한 공간의 의미는 다른 유배인들의 스토리와도 연결된다. 동계 정온은 대정 유배생활 동안 부단한 독서활동을 통해 학문적 완성을 이루었고, 정난주 마리아는 종교적 신념을 지켜나가 신앙인으로써의 모범을 이루었다. 즉, 대정의 유배인들은 유배생활을 견디고 종교인으로 예술인으로 학자로 한층 더 성숙한 경지에 다다른 것이다. 따라서 유배 공간이었던 대정성지 일대는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깨달음의 공간, 즉, 자기완성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완성의 공간으로의 의미는 역사성에서 심화시킨 대정성지의 심층적 장소성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삶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현대인들에게는 현실 생활이 오히려 유배생활처럼 고통과 절망의 시간일 수도 있다. 따라서 대정성지의 심층적 장소성인 자기완성, 깨달음의 장소로의 의미 제시는 현대인들에게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정체성으로 보다 매력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해 대정성지는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차별화되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정체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대정성지 공간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19) 이와 관련하여 2010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주유배문화의 녹색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사업” 과 관련하여 대정성지의 추사유배지를 중심으로 한 추사유배길이 조성되었다.

V. 결론

지금까지 대정성지 일대 공간의 장소자산을 기반으로 장소성 형성을 위한 공간 스토리텔링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장소성과 장소성 형성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소자산 분석, 스토리 발굴, 공간 기획으로 이어지는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표층적 장소성, 서사적 장소성 심층적 장소성을 연계시키는 공간의 의미 확장 프로세스를 도출하였으며, 이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연구 대상지인 제주도 대정성지 일대의 공간 스토리텔링 기획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로 장소자산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정성지는 과거 대정현의 관청이 있었던 곳으로 대부분의 장소자산이 역사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대정성지의 표층적 장소성을 역사성으로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 역사성을 기반으로 대정성지의 스토리를 발굴하였다. 우선 스토리 목록을 작성하고, 대표 스토리를 발굴한 후 스토리 테마를 선정하였다. 대정성지의 스토리 목록으로는 유배문화 스토리, 제주옹기문화 스토리, 돌문화 스토리가 있었다. 각 스토리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다른 스토리보다 경쟁력 있는 유배문화 스토리를 대표 스토리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 추사 김정희의 유배 스토리를 스토리 테마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대정성지의 서사적 장소성을 추사 김정희의 유배 공간으로 도출하였다.

세 번째로 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의 의미 분석을 통해 대정성지의 공간을 기획하였다. 각 장소와 스토리를 연계하여 장소마다 의미를 제시하였으며, 절망→성숙→자기완성으로 변화하는 추사 김정희의 유배의 의미를 적용하여 서막-발단-전개-전환-가속-절정-결말로 이루어지는 공간 스토리텔링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대정성지의 심층적 장소성을 자기완성의 공간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해 대정성지는 표층적 장소성인 역사성, 서사적 장소성인 추사 김정희의 유배 공간, 심층적 장소성인 자기완성의 공간으로 확장되는 차별화된 공간의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 자원을 활용한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해 차별화된 장소의 정체성 도출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차후 다양한 공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지닌 공간의 유의미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영순·김기국·박여성·백승국(2004), 『문화와 기호』, 서울: 인하대학교출판부.
- 김의숙·이창식(2008), 『문학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서울: 역락.
- 김현철·김용미(1996), 『건축공간 박물관』, 서울: 도서출판 발언.
- 남제주문화원(2006), 『대정군지』
- 대정읍주민자치위원회·제주참여환경연대·21C청년연대(2007), 『대정읍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 (사)제주참여환경연대·대정읍주민자치위원회.
- 류수열·유지은·이수라·이요욱·장미영, 『스토리텔링의 이해』, 서울: 글누림
- 문순덕·고희송(2010), 『제주도 문화자원 분포 현황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민족문화추진회(1996), 『국역 완당전집 1,2,3』, 서울: 숲.
- 민족문화추진회(2004), 『국역 동계집 1,2,3』, 민족문화추진회.
- 박승규(2009), 『일상의 지리학』, 서울: 책세상.
- 백선혜(2005), 『장소성과 장소마케팅』, 서울: 한국학술정보.
- 서귀포 문화원(2010), 『우리고장의 유적들』
- 양진건(2011), 『제주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서울: 푸른역사.
- 유홍준(2002), 『완당평전1,2,3』, 서울: 학고재.
- 이인화(2005), 『한국형 디지털스토리텔링』, 서울: 살림
-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2011), 『추사에게 길을 묻다』
- 제주서부농촌관광협의회(2010), 『제주농촌에서 놀자』
- 최혜실(2008), 『테마파크의 스토리텔링』, 서울: 글누림.
- 한국관광공사(2010),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경주관광 활성화 방안』
- 한국예술종합학교 도시 건축연구소·양진건(2005), 『제주유배문화 재조명 사업 기본 용역 보고서』

《논문》

- 김영순, 임지혜(2008), 「텍스트로서 ‘춘천’의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 『언어과학연구』 44집, 언어과학회.
- 김영순(2010), 「공간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재구성과 공간 스토리텔링-검단과 춘천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19호, 인문콘텐츠학회.
- 김은선(2009), 「공간 스토리텔링 기획 연구 - 나주 역사, 문화자원이 분포된 공간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수(2007),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의 생산적 논의를 위한 네 가지 접근법」, 『한국언어문화』 제32집, 한국언어문화학회.
- 박영호(2010),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남양주시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6권 4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 백승국·유동환(2008), 「테마파크 기획을 위한 공간기호학적 방법론 연구」, 『기호학연구』 제23집, 한국기호학회.
- 송경언(2005), 「장소마케팅에 있어 콘텐츠의 역사성, 네트워크와 문화, 생태지향적 관광개발」, 『지리학연구』 제39권 2호, 지리학회.
- 양준영·김억(2009), 「지역의 장소브랜드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장소성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9권 제1호, 대한건축학회.
- 이경은(2009),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연구: 전라북도 사례분석과 그 함의」, 『사회과학연구』, 제33집 2호, 전북대학교.
- 이남휘(2011), 「장소성 형성요인간의 인과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훈(2010), 「농촌관광마을의 스토리텔링 구현을 통한 장소성 확보」,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균(2005), 「경기 남동부지역의 장소자산의 특성 파악과 장소마케팅 추진전

- 략」,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8권 2호, 한국도시지리학회.
- 이준성·남수현·장미현(2006), 「지역개발 전략으로서의 장소 마케팅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권 4호, 대한건축학회.
- 정경운(2006), 「서사공간의 문화기호 읽기와 스토리텔링 전략 I - 『태백산맥』의 ‘별교’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9호, 현대문학이론학회.
- 최인호·임은미(2008),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장소마케팅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학연구』 제32권 제4호, 한국관광학회.
- 홍경구(2009), 「주제가로의 장소성 형성요인이 장소선택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지』 제25권 제1호, 대한건축학회.
- 한동현(2010), 「향토 문화 자료의 자원화 방안 연구」, 『역사문화연구』 제3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황정주(2009), 「마을만들기에서 지역문화자원 활용에 관한 고찰」,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웹사이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제주유배길 홈페이지<<http://www.jejuyubae.com>>
- 탐라순력도 홈페이지<<http://tamnamap.jejusi.go.kr>>
-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

[Abstract]

Strategy of Spatial Storytelling for the Daejeongseongji

Kim, Jin Chul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in Geon

There have recently been more frequent attempts to utilize local sites for storytelling as visitors not only expect the general sightseeing information but also want an inspiring and entertaining experience. A certain space fundamentally includes synchronically and diachronically accumulated stories so that people can understand a meaning of space by communicating via storytelling. Therefore when a new comprehension is provided through spatial storytelling, a differentiation of space will be achieved.

Applying resources from local sites the study draws a locality of a specific site through the use of spatial storytelling. At the beginning, the strategy of spatial storytelling was established in order to analyze various assets of the site, to discover stories, and then to design a space. Each step produces a process to extend meanings of the space so that superficial locality, narrating locality, and profound locality can be all connected to the space. The study applied this type of process to the Daejeongseongji and made an attempt on

the design of spatial storytelling.

First, by analyzing its assets, the study derived the historicity as an essential element from the Daejeongseongji. Secondly, the study discovered the story originating from the site, based on its historicity, and selected the exile story of Chusa Kim Jeong-hui as a story theme. And third, the study designed the space by analyzing the meaning of Chusa's life during his exile, and presented the significance of the site as place for self-realization. As a result, spatial storytelling made up of the locality of the Daejeongseongji so that its differentiation of space was achieved through the historicity as superficial locality, through the exile story of Chusa Kim Jeong-hui as narrating locality, and through place for self-realization as profound locality.

The study intended to derive the differentiated identity of site by spatial storytelling utilizing diverse resources of story. It is projected to be applied as the strategy of spatial storytelling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numerous sites in the future to enhance the comprehension of the space and to increase its value.